

근대 부산 교육과 도서관

-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부산지회 문고를 중심으로 -

김 경 희*

| 목 차 |

- I. 서론
- II. 개성학교 설립과 개성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
- III. 일본홍도회부산지회 설립과 도서관
- IV.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부산지회의 변화 및 평가
- V.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근대 부산 교육과 도서관의 설립, 변화 등 실제 인식 및 성격 평가를 하고자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문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개성학교는 부산 최초 근대학교이고,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홍도문고(부산도서관)는 부산 최초이자 국내 도서관의 始原이다. 이에 실증적 자료 수집과 조사 및 현장연구를 통해 우리근대에 대한 성찰, 반성 및 극복과 미래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근대는 1876년 개항으로 시작되어 서당, 향교, 학당, 성균관 등에서 이루어진 성리학적 교육에서 학교, 도서관 등을 통한 이성 중심, 자연과학적·유럽중심적 교육

* 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원 / smo1596@hanmail.net

으로 전환시켰다. 부산에서 박기중 외 4인은 아라나미 헤이지로를 학교장으로 세워 개성학교를 1895~1909년간 운영하였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전국 일본인 유자들이 1897년 결성한 일본홍도회 부산지회는 홍도문고·부산도서관을 1901~1911년간 운영하였다.

개성학교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개화, 신문물, 근대문명을 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에 의해 교육되었고 마산, 밀양, 대구, 경주, 울산 등까지 지교 또는 보조교를 두었다. 천황제를 공고히 하고자 결성된 일본홍도회 부산지회는 修身·國民道德·忠君愛國 관련 도서 제공 및 순회 강연, 영사관·통감부 통계 등으로 부산과 조선의 지역정보를 파악하였고, 부산을 넘어 마산, 대구, 서울, 목포, 원산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

부산과 조선에 있어서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홍도문고(부산도서관)는 근대로의 개혁기관이 아니라 근대인·시민으로 성장을 가로막고 황국신민화를 위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이었으며, 조선의 국권피탈 및 경제적 침탈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 일제의 변용된 근대산물이었다. 일제의 강압으로 시작된 우리근대는 향후 방대한 실증적 자료수집 및 다학제간 조사연구와 기록, 평가를 계속 축적하고 활용해서 온전히 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 지역 및 국가의 미래발전 가치는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핵심주제어 : 근대 부산, 개성학교, 일본홍도회부산지회, 아라나미 헤이지로

I. 서론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의 지식·독서·학습·생활·여가 문화를 진작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¹⁾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지역연구 지원 등으로 지역사 재건 및 지역공동체 형성·회복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²⁾ 국내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1) 윤희운·김경희,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연구-부산·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019, 51~71쪽.

한국도서관협회가 「길 위의 인문학」을 시작하면서 전국 단위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촉발되었고, 부산지역 공공도서관도 지역 관련 특강, 전시, 탐방 등으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은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으로 전략 방향을 수립해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식정보문화의 중심기관인 도서관[Library]은 국내에 학교와 함께 근대에 등장한다. 국내 최초 근대신문으로 알려진 한성순보 1883년 11월 20일자 “西洋 선비가 易經에 대해 論하다”에 「文庫」로 첫 등장하였고, 1884년 3월 27일자에는 ‘서적관, 도서실, 도서관’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각각의 번역어들은 1905~1906년 절정으로 사용되다가, 1910년을 지나면서 ‘문고, 도서관’으로 통용되었다.³⁾ 한편 국내에서 그 첫 실체는 1901년 부산에 있었다고 하지만 당대 신문기사에서 찾기 어렵고, 그 실체에 대한 인식과 성격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부산 근대교육 역시 189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림 2>의 지도를 보면 그 존재조차 중등교육에서 편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도서관에 있는 荒浪平治郎(아라나미 헤이지로) 저작 『(日清韓)三國千字文』(1900)의 『釜山開成學校』장서인에 대한 물음을 연구 시작점으로 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부산 최초 근대 학교와 120년의 역사를 가진 도서관⁴⁾의 始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림 1>의

2) 염지수, 뉴베리 도서관, 시카고의 잃어버린 역사를 재건하다, 2020.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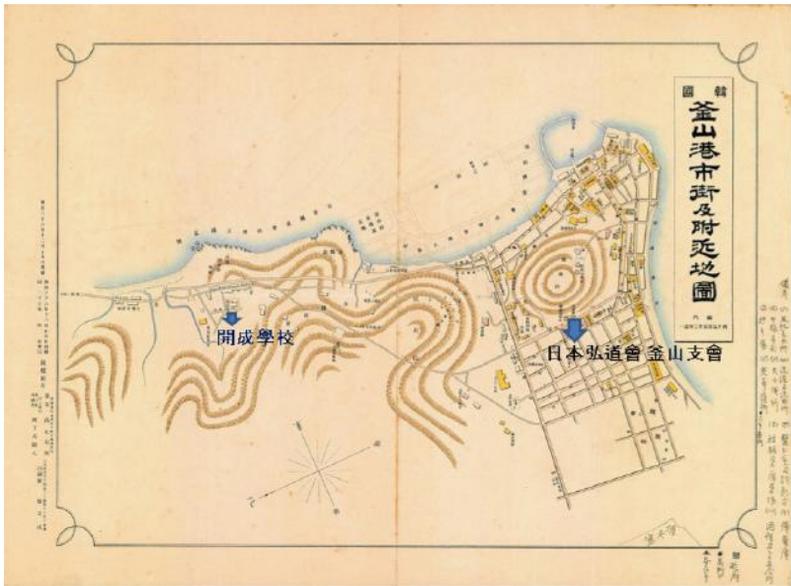
<https://brunch.co.kr/@yeoom/13>(검색일: 2020. 05. 14.)

3)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1880~1914년간 도서관 관련 신문 트렌드 분석 활용

4) 김영주, 120년 역사 자랑 우리나라 최초 공공도서관...고문헌도서관 특화, 『다이내믹 부산』 2020. 2. 4. <http://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63752>(검색일: 2020. 05. 14.); KBS 부산의 발견, 부산시립시민도서관, 2020. 3. 17.

http://program.kbs.co.kr/1tv/local/bsfind/mobile/board.html?smenu=963614&bbs_loc=10000-1521-04-93080,list,none,1,0(검색일: 2020. 05. 14.)

1903년 지도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근대 부산 교육·도서관과 관련한 연구 매체 및 범위에 집중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실증적 자료, 문헌·현장 연구 등을 통해 아라나미 헤이지로로 연결되어 있는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부산지회 문고를 중심으로 일본이 개항장 부산에 투입한 근대 학교와 도서관 설립, 변화 등 실체를 인식하고 그 성격을 톺아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1>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위치
(1903, 출처: 중앙도서관·부경근대사료연구소)

1. 근대교육과 부산

개항으로 시작된 근대는 전근대의 이념적 지주였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이성 중심의 자연과학적·유럽중심적 세계관으로, 서당, 향교,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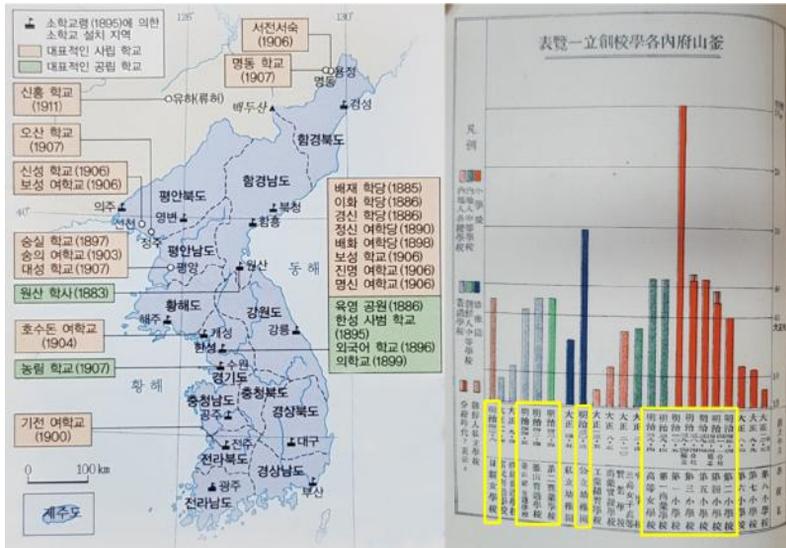
당, 성균관 등을 통한 교육에서 학교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1883년 원산의 민관은 합심하여 근대신지식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1885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는 기독교인 양성과 근대국가의 인재를 배양하고자 배재학당을,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부인은 조선여성을 위한 근대 교육을 하고자 이화학당을 설립하는 등, 근대교육이 <그림 2>와 같이 전국에 보급되었다.

한편 근대 부산에서도 <그림 2>를 보면 1895~1912년간 12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⁵⁾ 1895년 박기중 외 4인은 신학문, 일어 교육 및 문화로 개화하고자 개성학교를 現봉래초등학교 부근에 설립하였고, 같은 해 호주 선교부는 근대여성교육을 하고자 일신여학교를 설립하였다. 반면 재부 일본인은 조선 13도의 일본인 자제를 위한 상업교육의 총본산 역할을 하고자, 1905년 부산거류민 결의에 의해 1906년 서산하정에 부산거류민단립부산학교를 개교하였고,⁶⁾ 1907년 교육 관련 조사연구, 명사 초청강연회, 운동회, 실업야학교·도서관 경영 등을 하고자 부산교육회를 창설하였다.⁷⁾

5) 왼쪽부터 日新女學校(明治四二.八, 佐川町), 釜山鎮普通學校(明治四四.五, 凡一町), 釜山普通學校(明治四二.四, 瀛州町), 第二商業學校(明治四二.四, 東萊郡西面), 公立幼稚園(明治三〇.三, 琴平町), 高等女學校(明治三九.四, 土城町三丁目), 第一商業學校(明治三九.四, 大新町), 第一小學校(明治一〇.五, 大廳町四丁目), 第三小學校(明治三八.四 分校, 三九.四 獨立, 水晶町), 第五小學校(明治三九.四, 寶水町一丁目), 第四小學校(明治四一.一 分校, 四三.四 獨立, 瀛仙町), 第二小學校(明治四五.四, 寶水町一丁目)이다. 이 시기 절영도에 1908년 설립된 玉成學校(現 영도초 전신)는 1920년 설립 牧島普通學校로, 제2상업학교(개성학교 1895년 설립)처럼 설립일이 차이를 보인다.

6) 김승·양미숙 편역, 『(신편)부산대관-사진으로 보는 부산변천사-』, 선인, 2010, 222~223쪽. 1907년 보수정 신축 교사를 거쳐, 1912년 부산공립상업전수학교, 1922년 부산제1공립상업학교(現 부경고)로 되었다.

7) 『日鮮通交史』, 1916, 177~178쪽.



<그림 2> 근대교육의 보급과 부산의 학교
(출처: 중학교 역사부도·釜山教育五十年史)

2. 근대도서관과 부산

「Library」는 일본 메이지 계몽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文庫」로 번역해 1866년 『西洋事情』에 소개하였다. 국내에서는 유길준(1856~1914)이 1895년 『西遊見聞』에 「書籍庫」라고 소개하였다(탈고는 1889년에 됨). 이들(근대인)은 홍의균(1986)의 “근대 미국사회의 도서관 인식에 대해 지적 향상을 위한 위대한 진보로, 당시 상업적으로만 발달한 나라였고, 고유의 문화와 학문이 부족한 나라로 평가되었던 미국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심오한 과학적 탐구와 세련된 기호를 가진 지식층을 길러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관심도를 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에 지적 향상과 탐구 정신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⁸⁾라는 서술처럼, 도서관의 가치를 ‘개인과

국가가 고유한 문화와 학문적 이미지를 갖도록 학문적 활동 지원 및 지식문화생활 기여'로 인식하고 권장하였다.

국내 도서관 설립은 1901년 부산 전관거류지에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가 지회 내 『홍도문고』를 설치한데 이어, <표 1>과 같이 1907년 목포 각국거류지에 일본인유지들의 도서 공동구매를 위한 회원제 『목포도서구락부』,⁹⁾ 1911년 인천부 本町¹⁰⁾에 인천기독교청년회의 『인천문고』, 1912년 군산부에 군산교육회¹¹⁾ 소속 『군산도서관』 등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거류지에 근대도서관을 우선 설립하였다. 반면 우리들의 도서관 설립은 근대문명이 발달한 일본 및 미국, 유럽을 탐방하고 돌아와 계몽과 개화를 주장한 선각자들이 근대도서관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1906년(光武10년) 평양 유지(有志)들이 『대동서관』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 시기 경성에서도 『한국도서관(대한도서관)』에 대한 모색도 있었지만 19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쇄되면서, 국가도서관으로서 발전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를 남겼다.

국권 피탈 후 근대도서관 역할은, 조선인에게는 계몽 및 항일운동 등의 거점이 되었고, 일본인에게는 다이쇼(大正)시기 시작과 함께 1914년 4월 1일 전국적 부제 선포로 식민도시로 이행해 일본인(통감부시기는 本邦人, 총독부시기는 内地人으로 사용)을 위한 교육시설에서 일본인

8) 홍의균,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배경에 관한 연구-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7~19쪽.

9)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2017,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367~368쪽. 목포도서관구락부 대표였던 高根信禮는 1866년 茨城 출생, 부산에서 정착하다 1897년 목포로 이주해 거류민장을 역임하였다. 1912년(메이지45)에 설립된 『목포문고』 福田有造 역시 부산을 거쳐 간 무역상으로 상업회의소 부회두, 거류민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0) 『인천부사』, 1933, 1468~1469쪽. 『인천부사』에서는 인천문고가 설립된 1911년(메이지 44)에 山手町으로 이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1913년(다이쇼2)까지 本町을 인천문고의 위치로 명시하고 있다(1914년부터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체계가 바뀌면서 위치에 대한 상세정보 기록은 없었다).

11) 『群山府史』, 1935, 123쪽. 1914년 농사조합 사무소에서 도서관 업무 시작.

과 조선인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 이용되었다. 또한 일본인 지역교육회가 지역마다 결성되면서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더욱 확장해갔다.¹²⁾ 반면 일본은 1919년 3·1운동 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화하였지만, 우리들이 설립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폐쇄하였다.

<표 1> 식민도시 이전 전국 도서관 개황

지역	명칭 (명칭 및 위치 변경년도)	설립	관리(설립자)	07	08	09	10	11	12	13	14
경기	京城文庫(京城壽町→1911京城圖書館 京城府 南大門通)	1909 (페이지 42)	山口 精			1		1	1	1	1
	★ 학생서적종합소 (경성부) ¹³⁾	1910	김용준				1				
	★ 한국도서관 → 1910 대한 도서관	1906 (광무10)	이범구 외 서울유지	1	1	1	1	1			
	仁川文庫(仁川府本町→1914? 山手町)	1911 (페이지 44)	仁川基督敎會青年會 大谷信夫→1914仁川基督敎會青年會						1	1	1
	安城公立小學校附屬圖書館(安城郡)	1913 (다이쇼 2)	安城學校組合								1
충청	江景文庫(江景→1908 恩津郡 江景→1914 江景圖書館, 論山郡)	1907 (페이지 40)	柴田兼克 외 6명→1909坂上富藏 외 6명→1914坂上富藏	1	1	1		1	1	1	1
	大田文庫(大田郡)	1913 (다이쇼 2)	久門雄二								1

12) 송창현, 광주 3·1혁명·비밀결사·신문잡지종합소'가 주도, 2019.2.19 <https://news.v.daum.net/v/20190219103014697>(검색일: 2020. 05. 14.); 백창민·이혜숙, “결혼 기념으로 도서관을...” 일제가 반긴 조선 엘리트의 제안, 2019.4.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32(검색일: 2019. 05. 14.)

경상·부산	日本弘道會 釜山支會(釜山 西山下町→1903釜山 圖書館→1909 西町→ 1911釜山府 辨天町→ 1912山下町→1913琴 平町→1919釜山府立 圖書館 本町)	1901 (메이지 34)	日本弘道會 釜山支會長 荒浪平治郎→ 1907島田 歸 →1908日本弘 道會 釜山支會→1911 釜山教育會→ 1919釜山府	1	1	1		1	1	1	1
전라	群山圖書館 (群山府 群山→1913 群山教育會圖書館)	1912 (메이지 45)	群山教育會						1	1	
	木浦圖書俱樂部 (木浦各國居留地) 木浦文庫 (木浦府 本町)	1907 (메이지 40) 1912 (메이지 45)	高根信禮 외 9명 福田有造→ 1914中田 孝之助	1	1	1				1	1
	順天圖書館 (順天郡 蘇安面)	1911 (메이지 44)	樋口正毅→1914 根本行三						1	1	
평안	★ 대동서관	1906 (광무10)	평양 유지	1	1	1	1				
	平安南道教育會圖書館閱 覽室(平壤府 山手町)	1913 (다이쇼2)	平安南道 教育會						1	1	
함경	淸津圖書館(淸津府)	1913 (다이쇼2)	一番ヶ瀬建 太郎								1
합계 (★는 조선인 설립 도서관이고, 이외 일본인 설립 도서관)				5	5	6	3	4	5	8	10

주: 본 표 구성은 통감부가 통계를 발표를 시작한 1907년부터 식민도시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부제를 실시한 1914년까지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1910년 일본인 설립 도서관 통계치가 없는 이유는 통계기준일이 통감부시기가 12월, 조선총독부시기가 3월로 바뀌어서인 걸로 보인다. 또 도서관을 공립/사립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조선총독부가 1916년 도서관통계부터 공립/사립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남충현, 『近代 韓國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에 관한 研究-日帝時代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7쪽.

Ⅱ. 개성학교의 설립과 개성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

1. 개성학교의 설립

開成學校¹⁴⁾는 일본수신사 역관 및 초대 경무관이었던 박기중(1839~1907)에 의해 주역의 계사 상전 11장 ‘세상의 온갖 문물(物)이 갖고 있는 깊은 이치를 밝히고 깨우쳐(開), 문화 창달과 과학문화발전의 일(務)을 이룩한다(成)’는 뜻의 ‘開物成務’를 건학이념으로 삼아, 영주 동 現봉래초등학교 부근에 초등 6년, 중등 4년, 고등 2년, 연구 1년 교육과정으로 설립되었다(학제변경으로 現 봉래초, 개성중, 개성고 운영).¹⁵⁾

1899년 구관지교와 부산진지교, 1900년 마산, 밀양, 동래에 분교를, 1904년 대구 달성학교, 경주 계림학교, 기장 일어학당, 청도 개명학교, 울산 개진학교를 지교 및 보조교로 두었다. 1907년 설립자 박기중 사망 및 사립부산일어학교로 개칭, 1909년 설립자들이 학교 건물 부지 및 사택을 學部에 헌납하면서, 초등과정의 공립부산보통학교를 분리하고 공립부산실업학교가 되어, 개성학교의 역사는 마감되었다.

2. 개성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浪平治郎 1858~1921)는 부산근대교육에서

14) 김승·양미숙 편역, 앞의 책, 2010, 224~225쪽. 開成은 開化와 상통하는 의미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개화를 처음 사용했으며, 1878년 도쿄대학(東京大學)이 설립의 모체가 되었던 학교 중 하나가 ‘도쿄개성학교(東京開成學校)’였다.

15) 개성학교 창립 및 유지에 관계한 후원자(부산영사 및 주차대장, 부산감리): 加藤增雄, 伊集院彦吉, 能勢辰五郎, 弊原喜重郎, 高洲忠光, 矢野喜代馬, 坂根敏雄, 佐佐木榮次郎, 下條英四郎, 池錫永, 李英植, 李明翔, 李準榮, 玄明運, 趙種緒, 金宗源, 吳龜泳 교빈(校賓): 追間辰太郎, 齊藤孝藏, 白井朴, 竹村繁太郎, 宮本態, 島田歸, 北村敬介, 尾縣哲太郎, 京釜鐵道會社 代表 竹內綱, 小平道三郎, 伊藤博文, 朴泳孝, 目賀田種太郎, 竹下佳隆, 李鉦容, 宋台觀(출처: 『釜山開成學校 要錄』, 1934)

첫 학교장, 1896~1909년 개성학교 시기의 유일한 학교장이었다. 아라나미는 박기종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변곡점을 갖게 되었지만, 조선을 국권피탈길로 가게 만든 일어학교장으로 역활을 다한, 짧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림 3> 아라나미 헤이지로
(출처: 三國千字文·개성고 역사관)

아라나미는 시즈오카현 시다군 시마다정[静岡縣 志太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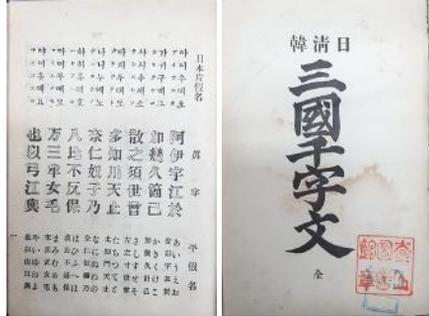
島田町]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적 이름은 角平, 아호는 岳川이었다. 3남 2여 중 장남이었고, 집안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8세 때 마을 경복사 주지로부터 글씨 쓰기를 배우고 수학 등 초보 학습과정과 한학을 습득하였다. 25세 때 동경에 유학하여 한문을 강구하였고 영어·독일어도 전공하였다. 1887~1890년 동경 철학관¹⁶⁾에서 만학(晩學)으로 32세 졸업해 육군 예비상무학교 교사로 2년간 재직한 후, 조선과 중국·러시아를 만유(漫遊)하고자 1895년 2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아라나미는 이 시기 박기종을 만나 부산의 개화 및 근대교육을 위하여 개성학교 설립에 의기투합하였지만, 1895년부터 1909년까지 그의 행적은 국내 및 부산 근대교육사의 개항기 일어교육자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의 문명관은 『(日清韓)三國千字文』(1900, <그림 4>)¹⁷⁾을 보면 “우리 일본은 동양에서 세계 각국의 학술을 종합해 절충했다고 해도 과

16) 철학관(哲學館)은 현재 동양대학(Toyo University)의 전신으로 1887년(메이지20년) 철학자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1858~1919)가 창립하였다. 교명은 1904년 철학관 대학, 1906년 동양대학으로 바뀌었다. 1906년 이노우에 엔료는 문부성과의 불화로 철학관에서 은퇴한 후, 修身에 의한 사회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17) 아라나미 헤이지로, 『(日清韓)三國千字文』, 1900, 22~27쪽.

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의 큰 연못에 사방에서 주입된 물이 막 흘러넘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략)… 조선과 중국에 이 사정을 알려서, 장래 그 나라의 문명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중략)… 옛부터 우리나라에 이익을 준 데 대한 답례…(중략)…”에서 박기중의 개화를 위한 근대학교 설립 제의에 의기투합하였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 (日清韓)三國千字文
(개성학교 교재. 출처: 시민도서관)

또 아라나미의 문명관은 만학(晩學)시기에 이노우에 엔료로부터 설복 정립되었다고 보면, 1906년 조선순강(朝鮮巡講)차 부산에 온 이노우에 엔료가 아라나미와 개성학교에서 만나 “요컨대 조선인은 수백 년간 아무런 진보도 없고 오래 악정 아래에 억압당하고 오직 구관(舊慣)을 고수해서 하루살이 생활의 경계를 보낼 뿐이다. …(중략)…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는 정말 불쌍히 여겼다. 그런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영지영능(靈知靈能)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인격에 대한 것, 천직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저는 일본인의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담화와 여행담에서 아라나미 역시 조선의 국권피탈을 도모하였다.¹⁸⁾

1909년 개성학교장을 그만두게 된 아라나미는 부산을 떠나서 1911

18) 三浦節夫,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아 동아시아 : 이노우에 엔료의 조선순강(朝鮮巡講)』, 『Journal of International Philosophy』 No. 4, 2015, 215~222쪽. <https://www.toyo.ac.jp/uploaded/attachment/15437.pdf> (검색일: 2019. 9. 4.) 현재 개성고등학교 소장자료나 稻葉繼雄의 저작에서는 이노우에 엔료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본 참고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년 조선총독부 취조국 촉탁, 중추원 겸 육군 촉탁을 역임하다, 1921년 63세로 谷町(아미동) 공동묘지에 묻혔다. 아라나미가 친일교육 및 조선을 침략한 자임에도 전근대와 근대 경계인으로 만학에도 학문을 강구하였고, 외국어에 능통하였으며, <표 2>의 유고목록을 통하여 지적 면모도 엿볼 수 있고, 부산에서의 행적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다른 유의미한 점도 찾아볼 수 있다.

<표 2> 아라나미 헤이지로 유고 목록

1. 日淸韓 삼국천자문(전, 荒浪平治郎 지음)	46. 선학총서
2. 문자담 荒浪岳川(동양철학소제)	47. 역학잡록
3. 철학개론 荒浪平治郎 稿	48. 행정학
4. 문자학 초안 1-6 荒浪平治郎	49. 행정학
5. 통속설문해자가 1-3 荒浪平治郎	50. 일본문전 요약
6. 통속설문가 초안 岳川學人 지음	51. 문법요강
7. 설문해자가 주석 초고	52. 지리비고
8. 설문해자 자모 차제고 2-3	53. 비망록 역사부
9. 설문해자 차제	54. 기룡각 총서 1) 중국 역사부 2) 중국사 당부
10. 설문해자 일문역 초고	55. 중국사 1.제도연혁 2.요급서하원 명칭
11. 문자 원형 이해 초고 岳川學人	56. 동양고대사 근세사
12. 한자음표고	57. 만국사 월텔 씨
13. 문자담 초고 岳川荒浪平治郎	58. 중세 저국사
14. 처문고 1-2 岳川居士	59. 구라과 근세사
15. 교육자류 岳川學人 稿	60. 희랍사, 동양사
16. 岳川총서	61. 로마사
17. 岳川거사 총서	62. 서양철학사, 인도철학사
18. 岳川거사 만록 1-2	63. 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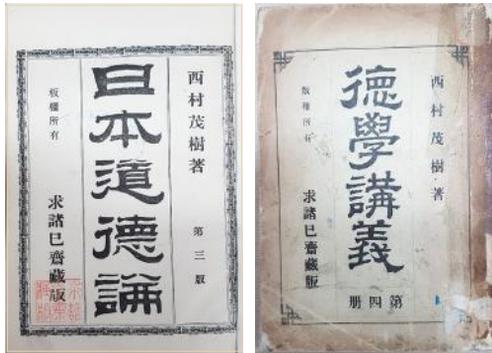
19. 岳川수필	64. 노자 잡록
20. 岳川거사 여력집	65. 천자문 천.지.인
21. 岳川 우향고(偶響稿)	66. 시경잡록
22. 기사문고	67. 당시선 한산시
23. 북청만유기행 초고	68. 삼체시, 두시
24. 북청만유기행고	69. 문장체법
25. 조선만유 도상전후 기행 1절	70. 춘추노자전예사
26. 금강산 시문	71. 논어
27. 岳川 서원 서적 목록	72. 논어 집록
28. 독서일지	73. 맹자
29. 조선국하사 요약	74. 일본외사론문
30. 논어초록고	75. 태동유불총서
31. 유동독시	76. 역대집요 상하
32. 동몽수양시 제1	77. 중국·조선·일본·구주 학파록 고
33. 문헌비고초록 岳川山人	78. 조선유림전고 재료
34. 문장요록	79. 조선인명록
35. 조선해동사시 재료 고	80. 조선근대인명록
36. 한학해성(諧聲)	81. 동유사무록
37. 한자학 요약	82. 조선청구별호류집
38. 교육자류	83. 어학잡록
39. 교육자류 색은	84. 조선어학, 중국어학
40. 자류	85. 일한어류 대역 류별편
41. 설문 허신	86. 언문말착 류별편
42. 운학잡식	87. 비망록
43. 고문류집	88. 비망록
44. 일본철학, 중국철학	89. 잡
45. 윤리학 개요	계 89부

『釜山開成學校 要錄』, 1934(개성고등학교 역사관 제공 2019. 9. 4.)

Ⅲ.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의 설립과 도서관

1.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의 설립

일본흥도회는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가 1876년 修身·도덕교육을 위한 교화단체로 ‘東京修身學社’를 전신으로 하여, 1887년 창설하였다. 니시무라는 메이지 초대 미국공사·문부대신을 지낸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의 제안으로 1873년 ‘메이로쿠샤(明六社)’를 결성하였다. 모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민권과 국가발전을 위해 아카데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니시무라에게 제안하였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 등과 함께 메이로쿠샤를 구성하여, 근대 일본의 국민계몽과 문명개화를 통한 근대국가건설을 설교하였다. 하지만 니시무라는 메이로쿠샤의 개명주의(開明主義)를 후퇴시키고 보수적인 도학자적 경향을 강하게 표명하며 <그림 5>와 같이 『日本道德論』, 『德學講義』를 저술하고 순회 강연하는 등, 천황제에서의 다른 역할로 修身 및 國民道德과 忠君愛國을 주창하였다.¹⁹⁾



<그림 5> 니시무라 시게키 저작
(출처: 시민도서관)

일본흥도회는 1897년 조선 유일로, 부산을 중심으로 조선에 지회를

19) 家永三郎 著·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 역, 『근대 일본 사상사』, 소명출판, 2006, 33~86쪽.



- 釜山浦開成學校 (長) 荒浪平次郎
- 全本町二ノ五 (事) 宮本 巖
- 全西町二ノ一五 (議) 島田 歸²⁰⁾
- 全本町高瀬商店 (全) 福永政治郎
- (全) 生尾 久治
- (全) 追間房太郎
- (全) 豊田福太郎
- (全) 青見 栄藏
- (全) 野口彦五郎
- (全) 矢橋 寛忠
- (全) 成田 定
- (全) 今西峰三郎

타카세(高瀬)상점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거점이었다고, 광복 후 도서관이 부전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現 중구 동광동 부산 호텔 자리에 있던 미즈이(三井)물산과 함께 이용되었다(『신편 부산대관』, 2010, 390~391쪽 외).

- 島田 歸
시마다 키
1851—1915(?)
1906 일본홍도회 중신회원
1907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장
(부산도서관)
1909 부산거류민단장
1912 부산교회회 부산도서관
부회장
- 追間房太郎
하자마 후사타로
1860—1942
부산 3대 일본인 거부

<그림 6>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임원
(『日本弘道會要覽』, 1906, 출처: 시민도서관)과 관련 자료

설립하였다. 지회장은 개성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였고 부산 92명, 타 지역 38명 회원으로 결성되었다.²¹⁾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임원(役員)

20) 松原孝俊, 앞의 책, 2002, 150~151쪽; 『釜山要覽』, 1912, 60~61쪽. 시마다(島田 歸)는 일본홍도회 중신회원으로, 부산교육회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로부터 부산도서관을 승계해 운영할 때 부산거류민단장으로 도서관의 부회장이 되었다. 이전 이력은 1907년(메이지40) 아라나미 헤이지로에 이어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부산도서관을 대표하였으며(『제2차 통감부 통계연보』, 1909, 121쪽), 개성학교 창립 및 유지에 관계한 교민(教賓)이기도 하였다.

21) 松原孝俊, 『釜山市立圖書館略史(1901년~1938年を中心に)』, 『臺灣·朝鮮·滿洲に設立された日本植民地期各種圖書館所藏日本古典籍の書誌的研究』, 九州大學大學院言語文化研究院, 2002, 145쪽.

은 12명으로 회장 아라나미 헤이지로, 개성학교 교번 宮本 巖[미야모토 히쿠마], 거류민단장 島田 躰[시마다 키], 현재 동광동 부산호텔 옆에 있던 高瀨[타카세]상점 종사자들로 <그림 6>과 같이 구성되었다. 타 지역 회원으로는²²⁾ 원산영사관 小林幸之助, 경성학교 宇津木勢八, 마산포 藤本鐘太郎, 목포 西川太郎²³⁾, 원산공립소학교 香川武三郎, 대구달성학교 滕付益吉 등. 서쪽으로는 목포와 북쪽으로는 원산까지, 일본인 거주지의 유지들로 결성되었다.

1906년 발행된 『日本弘道會要覽』에 의하면 부산지회는 56번째로 기술하고 있고, 단체창설 30년 사이에 조선(부산), 대만²⁴⁾, 북해도²⁵⁾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장해 137개 지회(支會)를 두었다.²⁶⁾ 1994년 『유교사상문화연구지』에 일본 근대유학자로 일본홍도회 설립자 니시무라 시게키가 다시 연구되었고, 2000년에도 『弘道』잡지 발행이 계속되는 등, 이 단체의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도서관 운영

일본홍도회는 1897년 개항장 부산에서 아라나미 헤이지로를 중심으

22) 松原孝俊, 위의 책, 2002, 146쪽. 1902년 회원명부

23)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7, 367쪽. 1867년 但馬에서 출생해 1898년 목포 이주 전에는 부산과 원산에서 정착했다. 직업은 제일은행 목포출장소 지배인으로 목포 일본거류민회의장, 상업회의소회두, 목포홍농협회장을 지냈다.

24) 대만은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할양받은 최초의 해외 식민지로, 1945년 8월 15일 패전까지 50년간 통치를 받았다.

25) 北海道(홋카이도, Hokkaido)는 메이지시대에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1868년 하코타테로 부르다가, 1869년 지금의 명칭인 홋카이도로 개칭되었다. 다이쇼시대로 바뀌면서 북해도에도 내지(内地)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회가 중심이 되어 각지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1881년 함관(函館)교육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육회도 서관이 생겨나면서 문고나 도서관이 설립되었다(加藤一夫 외 저·최석두 역,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한울, 2009, 66쪽).

26) 『日本弘道會要覽』, 1906, 3~9쪽, 28쪽.

로 한 전국의 일본인 130명이 지회를 결성하였다. 1901년 지회사업으로 용두산 西山下町에 지회 건물을 신축하고, 지회 내에 弘道文庫²⁷⁾를 설치하여 公衆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이용증가로 지회 건물을 개축하고 1903년 ‘釜山圖書館’이라 칭하였다.²⁸⁾ 1907년 일본홍도회 부산지회는 일본홍도회 중신회원·부산거류민단장인 시마다[島田 歸]가 부산도서관의 장이 되었으며, 1911년 부산교육회가 부산도서관을 계승해서 운영하였다(<표 4>를 보면 부산교육회 소속 부산도서관의 장서인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문고의 장서인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문고의 명칭은 부산 내외 및 일본 연구자의 배경, 학문적 배경, 사료 및 방증자료의 제한 등으로 <표 3>과 같이 다양하게 命名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실증자료인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사용한 장서인에 의하면 정확한 명칭은 ‘日本弘道會釜山支會’와 ‘釜山圖書館’이고, ‘문고’ ‘서적실’ ‘도서실’ 등은 서술자의 스키마와 시대적 경향(트렌드)이 다름에서 기인한 것이며, 부산도서관이 부산교육회로 승계되기 전까지 두 장서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문고 명칭과 관련된 자료

부산 외		부산 내	
백 린 (1969, 150쪽)	부산도서구락부	시민도서관 (2019, 홈페이지)	홍도회 부산지부 독서구락부 도서실
김포옥 (1978, 45쪽)	부산도서관	김종문(1969, 5쪽)	일본홍도회 부산지부 도서관
이환숙 (1980, 15쪽)	부산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역협의회	부산 도서관, 용두산의 도서관,

27) 위의 책, 1906, 13쪽, 21쪽. 일본홍도회가 요람에서 규정한 근대도서관 명칭.

28) 『慶尙道事情』, 1904; 『釜山港勢一斑』, 1905, 220~221쪽; 『日鮮通交史』, 1916, 178쪽. 『慶尙道事情』(1904)와 『釜山港勢一斑』(1905)에 의하면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1899년 조선인과 일본인(併)40여명으로 中學程度教育의(홍도)중학교를 개교해 본원사 별원 1실을 借하였다. 1901년 공립소학교에 보습과를 설립하였다.

		(2003, 41 쪽)	도서구락부, 문고, 흥도회도서관
김세익 (1982, 221 쪽)	도서실, 부산도서관	최정태(2003, 182쪽, 부산대 문헌정보)	일본흥도회 부산지부 도서관
김남석(1990, 71~75쪽)	흥도도서관, 부산도서관	부산대관(2010, 136쪽)	일본흥도회 부산지부 도서관
松原孝俊 (2002, 145~150쪽)	도서실·서적실, 부산도서관	표용수(2010, 394쪽)	일본흥도회 도서실, 부산도서관
加藤一夫 외 (2005, 186~187쪽)	부산독서구락부, 부산도서관	중앙도서관(2011, 160쪽)	일본흥도회 부산지부 도서관
곽철완 (2012, 192쪽)	부산도서관	최순남(2013, 37쪽, 시민 열람과장)	흥도회 도서실
김영석·이용재 (2018, 134쪽)	일본흥도회 도서실	중구청(2013, 152쪽)	흥도회 독서구락부 도서실, 부산도서관
윤희운 (2019, 249쪽)	흥도도서실	중구청·부산대 한민연 (2018, 34쪽)	부산도서관구락부
본 연구의 사료 및 지도와 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장서인			
부산항 시가 및 부근 지도(1903)	弘道會		
慶尙道事情(1904, 필사본)	(1903)釜山圖書館		
釜山港勢一班 (1905, 220~221쪽)	(1901)圖書室, (1903)釜山圖書館		
日本弘道會要覽 (1906, 13쪽, 21쪽) ²⁹⁾	日本弘道會 釜山支會, 弘道文庫		
日鮮通交史(1916, 178쪽)	(1903)釜山圖書館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 16쪽, 31쪽)	(1904/1907)弘道館 ³⁰⁾	2.5cm×2.5cm	3cm×3cm (장서인1)

- 29) 『日本弘道會要覽』, 1906, 일본흥도회에서는 “支會”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의 조직은 男子部·女子部·圖書部이고, 圖書部 사업으로 『弘道文庫』 설립을 기술하고 있다.
- 30)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 이 문헌에 의하면 부산 근대도서관 명칭을, 1904년(고종 41) 심상소학교 학생 980명이 12월 화재로 『弘道館』 계단 위·동본원사·서본원사 외 인근에 분산되어 수업, 1907년 부산교육회 결의로 부산실업야학교(1919년 부산상업학교로 계승) 사업식을 『弘道館』에서 거행으로, 『弘道館』이라 기술하고 있다. ※흥도관

이에 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사료 속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문고 및 부산교육회 부산도서관 장서인³¹⁾, 기증 관련 정보 등에서 방증자료를 추가하면 <표 4>와 같다. 이와 함께 <표 7>의 장서인과 타 지회 장서인으로 추론해보면, 부산 근대도서관 명칭은 1901~1903년 <일본홍도회부산지회> → 1903~1911년 <일본홍도회부산지회/부산도서관> → 1911~1919년 부산교육회 소속 <부산도서관> 장서인처럼 변화하였다.

<표 4> 일본홍도회부산지회 문고 명칭과 관련한 방증자료
(출처: 시민도서관)

日本弘道會豊岡支會	저자 기증본	장서인1 (통감부 기증)	장서인 2 (다이쇼기 기증)
			

한편 일본홍도회 부산지회(홍도문고) 위치는 ‘용두산 동쪽’, ‘서산하정’, ‘부윤 관사’ 등 그동안 문헌으로만 알 수 있었다. 근대도서관 위치에 대한 문헌 중에서 표용수(2010)는 “용두산 동쪽”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표 5>의 문헌들을 함께 보면 『日鮮通交史』(1916)에서는 “松峴山東面”, 주경업의 저작(2013)에서는 “... 동·서관이라 부르는 것이

은 일본 근대화 기반이 된 尊王攘夷 사상의 근간이 된 곳으로 미토히(水戸)가 유명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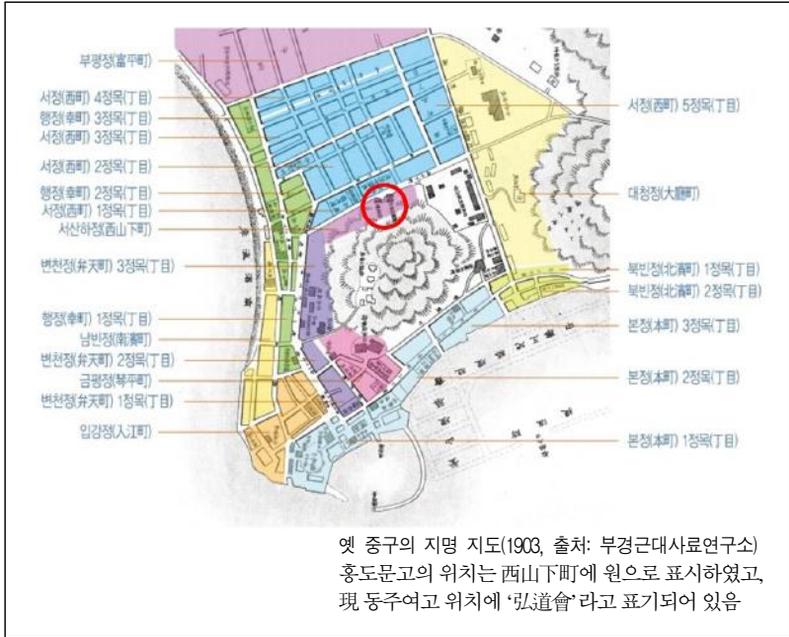
31) 시민도서관의 고문헌실 사료에서, 어떤 도서관에서 소장했던 장서라는 것을 표시하는 날인(藏書印)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통례 … 남쪽 바닷가와 가까운 순서로 동대청이라고 …”를 방증으로 삼아 ‘이 시대 일본인들의 인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또 지명과 관련해서 <표 5>의 『統監府·朝鮮總督府統計年報(1907~1914)』의 도서관 위치를 정리해보면 이 시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변화라고 보인다.³²⁾ 본 연구과정에서 1903년 <부산항 시가 및 부근 지도>와 <중구의 옛 지명 지도>에 ‘弘道會’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문헌과 대조할 수 있었다.

<표 5> 부산 근대도서관의 위치 관련한 문헌 및 지도

위치	문헌 및 사료	상세내용	통감부·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용두산 동쪽	표용수 (2010, 394쪽)	1902년 용두산 동쪽 기슭에 사무실을 둠	1907 (페이지40)	西山下町
	중구 (2013, 152쪽)	1902년 용두산 동쪽 기슭에 사무실을 둠	1908 (페이지41)	西山下町
	일선통교사 (1916, 178쪽)	館は松峴山東面の中腹眺望最佳	1909 (페이지42)	西町
	주경업 (2013, 145쪽)	왜관 건물들은 용두산(일본의 이름 中山)을 사이에 두고, 동관·서관이라 부르는 것이 통례였기에서관의 건물들도 남쪽 바닷가와 가까운 순서로 一特送屋(서대청)·參判屋(중대청)·副特送屋(동대청)으로 각각 호칭이 바뀌게 된다	1910 (페이지43) 1911 (페이지44) 1912 (페이지45)	- 辨天町 山下町
이외	松原孝俊 (2002, 146쪽)	龍頭山下の西山下町8番地	1913 (다이쇼2)	琴平町
	시민도서관 100년사 (2002, 8쪽, 85~87쪽)	부윤 관사가 있던 곳에 있었다고 추정 용두산 아래 교서관하정 8번지	1914 (다이쇼3)	내용없음

32) 『朝鮮之圖書館』, 1935, 24쪽. 釜山府시기 도서관 위치는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본정 2정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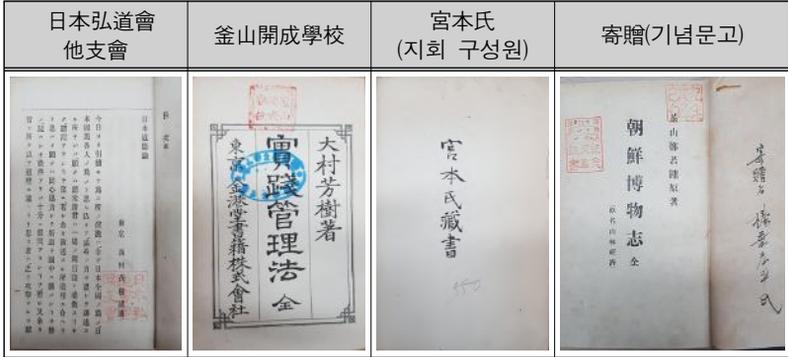


도서관 장서는 <표 6>의 일본 소재 일본향도회 지회도서, 釜山開成學校 도서, 일본향도회 부산지회 구성원의 기증도서, 지역기관 기증도서 등으로 구축하고 있다.³³⁾ 장서는 동양서인 和漢書와 洋書로 분류되었다. 『日鮮通交史』(1916)에 의하면, 부산도서관 장서는 1914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장서가 5,329冊(和漢書5,046, 洋書283)으로 “小説二六, 地誌, 紀行, 傳記各八, 商業, 産業各七, 和漢文, 法令書各六, 戰史, 辭典各二, 心理, 倫理, 衛生各五, 博物四, 美術, 神書, 宗教, 雜書各一” 등이었는데, 현재 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표 7> 등 1,616권이 있다.

33) 松原孝俊, 앞의 책, 2002, 149쪽

<표 6>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문고의 장서 구성

(출처: 시민도서관)



<표 7> 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소장도서 목록

발행년도	저자	표제	출판사	장서인
1875 (메이지8)	稻垣滿二郎	西比利亞鐵道論	哲學書院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1893 (메이지26)	武岡磐太郎	露國東洋策	哲學書院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井上哲次郎	內地雜居論	哲學書院	釜山開成學校
1894 (메이지27)	加藤弘之	小學教育改良論	哲學書院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二百年後の吾人		釜山開成學校
		日本の十大勝算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1896-1901	西村茂樹	德學講義 (第三~十冊)	哲學書院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1898 (메이지31)	高頭忠造	史料大觀	哲學書院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1899 (메이지32)	足立四郎吉	心學史要	右文館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湯本武比古	學童百話	開發社	(부산교육회) 釜山圖書館

1900 (메이지33)	育成會	歐米教育觀	同文館	부산부립도서관 (장서인 없음)
1901 (메이지34)	岡田武松	近世氣象學	博文館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金井延	經濟學	金港堂書籍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野中至	富士案内	春陽堂	어대전기념문고
1902 (메이지35)	內務省 地方局	歐洲諸國に於ける 地方團體の課稅	內務省 地方局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長澤龜之助	算術教科書	東京開成館	(부산교육회) 釜山圖書館
	田尻稻次郎	經濟學大義	專修學校	宮本氏藏書
	田中治六	教育學	同文館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1903 (메이지36)	高橋作衛	戰時國際公法	哲學書院	장서인 없음
	農商務省	大日本農史上下	博文館	기념문고
	遠藤吉三郎	日本有用海産植物	—	日本弘道會釜山支會, 釜山圖書館
	小中村清矩	令義解講義	吉川弘文館	釜山府內圖書館
1904 (메이지37)	遠藤又藏	平面三角法	光風館書店	탈락
	田添鐵二	經濟進化論	平民社	탈락
	平田久	宮中儀式略	民友社	(부산교육회) 釜山圖書館
1905 (메이지38)	大瀨太郎	教育學講義	成美堂書店	釜山府內圖書館
	鴨田修治	衛生顧問	修學堂書店	釜山府內圖書館
1906 (메이지39)	足立四郎吉	日本弘道會要覽	日本弘道會	장서인 없음
1911 (메이지44)	遠藤隆吉	東洋倫理學	弘道社	탈락
1912 (메이지45)	服部靜夫	岡田武呼吸靜坐法	弘學館書店	(부산교육회) 釜山圖書館
	ひ口勘治郎	打明け話	弘道館	탈락
1914 (다이쇼3)	杉山茂丸	青年訓	弘道館	탈락

또 『統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도서관 통계는 1907년 장서수 和漢書 610冊, 洋書 1,466冊, 연중개관일수 92일, 연중경비총액 42엔이었고, 1908년 장서수 和漢書 1,632冊, 洋書 1,819冊, 연중개관일수 365일, 연중경비총액 827엔, 연중열람인원 267명, 열람료 3원 47전으로 나타나, 도서관 운영이 장서수·개관일수 증가 및 연중경비총액이 많아지는 등 1년 사이 활성화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부산지회의 부산도서관 대표가 아라나미 헤이지로에서 시마다로 교체되었고, 1907년 부산교육회가 창설되면서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도서관 운영주체가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에서 부산교육회로 승계되어지는 과도기로 엿보인다.

1901년 근대도서관 성격의 흥도문고 설치, 1903년 부산도서관으로 칭하고, 1907년 설립자가 교체된 변화 시기에 출판된 도서는 현재 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장서로 <표 8>과 같이 남아, 국내외 근대도서관 연구자들이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8> 일본흥도회 부산지회 『(흥도문고)부산도서관』시기의 현존 장서 현황

기간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 과학	400 자연 과학	500 기술 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계
~1900	48	46	23	208	5	11	7	7	129	194	678
1901~1902	6	12	3	35	4	1		1	9	26	97
1903~1906	6	14	10	85	8	13	6	3	39	98	282
1907~1910	22	29	15	127	2	25	25	12	86	217	560
합계	82	101	51	455	19	50	38	23	263	535	1,617

주: 시민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실 장서 18,420권 중, 일본흥도회 부산지회가 운영하였던 시기의 현존 장서 현황은 1,617권이다. 역사가 535권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사회과학 455권 문학 263권이 다음 순으로 남아 있다.

IV. 개성학교와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의 변화 및 평가

1. 근대 부산 교육에 있어서 개성학교의 변화

근대 부산 교육에 있어서 개성학교의 변화는 첫째, 1907년 설립자 박기종이 사망하였다. 둘째, 통감부 학제 개편으로 1907년 관공립학교에 일본어가 필수과목이 되면서 한강 이남에서 일어학교의 리더로서의 존재이유가 약화되었다. 셋째, 1905년 8월 부산거류민회의 결의에 기초해 1906년 4월 조선 13도 일본인 자제를 위한 상업교육의 총본산으로서 임무를 받아 서산하정에 부산거류민단립부산상업학교를 개교하고, 1907



<그림 7> 식민도시기 부산교육과 개성학교의 변화

지도는 부산 근대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을 표시하고 있고, 오른쪽 위 네모가 제2공립 상업학교로, 1923년 학교 이전으로 서면 지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년 1월 재외 지정학교가 되었다. 결국 1909년 설립자들은 학부에 학교를 헌납할 수밖에 없었고, 아라나미 헤이지로 역시 학교장을 그만두고 부산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1909년 공립부산실업학교~1911년 부산 공립상업학교로 변화되었고, 1916년 화재로 신교사를 신축하였다. 1922년 영주동시대를 마감하고 부전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으며, 1923년 부산거류민단이 1906년 개교한 부산거류민단립부산상업학교에 ‘부산제1’을 내어주고 ‘부산제2’ 공립상업학교가 되었다. 반면 부산교육은 <그림 7>과 같이 심상소 학교, 보통(초등) 및 상업 등으로 분화되면서, 식민도시의 학교 교육이 22곳에서 이루어졌다(<그림 2>와 함께 참고).

2. 근대 부산의 도서관에 있어서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의 변화

근대 부산 도서관에 있어서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의 변화는 첫째, 1907년 도서관의 대표가 개성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에서 일본흥도회 중신회원·개성학교 창립 및 유지에 관계한 교빈(教賓)·거류민단장·부산교육회 부회장 시마다[島田 歸]로 교체되었다(『統監府統計年報』, 1909, 121쪽). 둘째, 1907년 부산교육회가 결성되면서 도서관을 교육회 사업으로 명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유로 도서관 운영주체는 1911년 일본흥도회 부산지회에서 부산교육회로 승계되었다. 지회 건물은 <그림 8>과 같이 부산일보사가 매입하여 본사로 사용하였다.

도서관을 승계한 부산교육회는 1911년 <그림 9>와 같이 辨天町(現 광복로 194계단 옆)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초기 건평은 35평, 공사비용은 6,803원 84전이였다. 『日鮮通交史』에 의하면 1914년 10월 기준 도서관 장서수 和漢書 5,046冊, 洋書 283冊, 연중개관일수 299일, 연중경비 총액 827엔, 열람인원은 1일 평균 11.76명으로 연 3,516명이 이용하였



<그림 8> 변천정 3정목 1911~1915 부산일보 본사(출처: 1915년 부산일보)

주: 위 사진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1901년 서산하정에 신축했던 지회의 건축원형에 가장 근접한 시각자료이다. 통감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근대 부산일보사가 1905년 대청정에서 창업하고, 1907년 창간해 운영하다가 1911년 서산하정에서 변천정 3정목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조선시보사 옆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건물을 매수하였다(이는 <釜山市街全圖(1911)>에 <부산일보사>로 명시되어 있다). 이후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비호로 부산 일본인 3대 거부를 넘어 조선의 해상왕이 된 카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와 타카세상점 2대 대표인 후쿠나가 마사지로(福永政治郎)는 일본인 자제 교육을 위해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1899년 개교한 중학교(메이지32, 釜山弘道中學校)를 계승해 1919년 부산일보사를 개축하여 부산상업야학교 본교로 사용하였다(『釜山港勢一斑』, 1905, 220쪽;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 44쪽;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410 검색일: 2021. 06. 13.). 1921년 부산상업실천학교로 개칭하였으며, 現 동주여고 전신이다.

고, <표 9>와 같이 이 시기에 출판되어, 현재 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장서로 남아 있다. 1912년 도서관의 회장은 부산부윤, 부회장은 부산거류민 단장으로 구성되었고, <부산교육회 부속 부산도서관 규칙(1918년, 다이쇼7)>에서 會長에서 館長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19년 부산부가 부



<그림 9> 1910년대 용미산에서 바라본 용두산공원

(출처 : 중앙도서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네모 표시는 부산교육회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로부터 부산도서관을 승계받아 도서관을 변천정에 신축한 초기 모습의 사진으로 중앙도서관에서 방증자료를 찾던 중 발견하였다.

산교육회로부터 도서관을 이관받아 무료, 공공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이 증가하였고, 학생들의 열람실 이용도 늘어났다.

<표 9> 부산교육회 「부산도서관」시기의 현존 장서 현황

기간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 과학	400 자연 과학	500 기술 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분류 없음	계
1911~1913	28	68	9	101	11	52	4	9	59	190		531
1914~1918	56	75	24	159	17	54	22	7	85	358	106	963
합계	84	143	33	260	28	106	26	16	144	548	106	1,494

주 : 시민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실 장서 18,420권 중, 부산교육회가 운영하였던 시기의 현존 장서 현황은 1,494권이다. 여전히 역사가 548권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사회과학 260권 문학 144권이 다음 순으로 전 시기와 비슷하였으나, 기술과학이 50→106으로 괄목하게 입수된 상황으로 보인다.

3. 근대 부산에 있어서 개성학교와 아라나미 헤이지로 및 도서관에 대한 평가

아라나미 헤이지로의 행적에 대해 당대 피교육자들의 인식은 ‘우리 겨레도 일본처럼 개화해야 하기에 일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98년 동래부학교(동래일어학교)를 설립했지만, 지역유지의 사재로 시작된 것이어서 재정난에 빠지자, 1903년 문을 닫았다. 아라나미 헤이지로가 이틈을 노려 인계받고, 걸으로는 신교육을 표방하고, 동래 서계소(書契所)³⁴를 개조해 개양학교를 세워 일본 외무성의 원조를 받으면서 동래 청년들에게 친일교육을 시켰다’고 평가하고 있고,³⁵ 그의 일본문명관과 報恩思想 및 이노우에 엔료의 영향을 보아도 ‘근대 부산과 개성학교 학생을 위한 바른(正)교육을 하였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또 개성학교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개화, 신문물, 근대문명을 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를 통해 교육하고자 박기종 외 4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를 원산의 민관이 합심하여 근대신지식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원산학사, 근대국가의 인재를 배양하고자 설립된 배재학당, 여성을 위한 근대교육을 하고자 설립된 이화학당 및 일신여학교 등과 대조한다면 개성학교와 박기종에 대해 ‘부산의 개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 근대학교와 선각자’라고 명명하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로 보인다.

한편 일본흥도회 부산지회는 천황제를 공고히 하는 修身·國民道德·忠君愛國의 주지(主旨)를 근대도서관에서 관련 도서 제공 및 순회 강연하였고, 재부산일본영사관·통감부가 기증한 자료³⁶로 조선의 지역정보를 파악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부산을 넘어 마산, 대구, 서울, 목포, 원산

34)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문서(書契)를 관리하고 관련된 사무를 보던 동래부 소속 담당 기관.

35) 東萊高等學校 同窓會, 『東萊高等學校 100年史』, 東萊高等學校 同窓會, 2002, 39~42쪽.

36) 통계자료와 보고서는 “秘”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까지 미쳤다. 개항 이후 오랫동안 조선에 대한 지식정보를 수집해온 일본인들은 일본 영사관·통감부와 상호협력하였지만, 국권 피탈 후 조선 총독부와 府로 수렴되지 못하고 기로회, 부산잡인회, 부산부회 등 지역의 이해집단으로 변화하였다.³⁷⁾

이상 재조선일본인들이 설립한 근대도서관이 자신들(당시 본방인으로 사용함)을 위한 교육이 목적인 시설이었다고 하지만, 일본흥도회 부산지회 임원으로 부산의 일본인 3대 거부 중 1인 하자마 후사타로 및 타카세상점 점주·카시이 겐타로와 1919년 부산상업야학교(1921년 부산상업실천학교로 개칭, 現 중구 동주여고)를 설립한 후쿠나가 마사지로 [福永政治郎], 충청 강경문고(1907년 설립) 및 전라 군산도서관(1912년 설립)이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³⁸⁾ 개항장이거나 쌀 수탈이 용이한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경제적 수탈까지 자행하였다. 근대 부산 교육과 도서관에 있어서 개성학교와 아라나미 헤이지로 및 일본흥도회 부산지회(흥도문고/부산도서관)는 부산과 조선의 근대 개혁기관(개혁가)이 아니라 조선의 국권피탈을 용이하도록 황국신민화교육을 너머 경제적 수탈까지 이룬 일본의 전초기지로 작용하였다.

V. 결론

우리의 근대는 1876년 개항을 시작으로 서당, 향교, 학당, 성균관 등에서 이루어진 성리학적 교육에서 학교, 도서관 등을 통한 이성 중심, 자연과학적·유럽중심적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근대도서관은 전근대 제

37)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15~35쪽.

38) 윤희윤, 『도서관 지식문화사 - 세상 모든 지식의 자리, 6000년의 시간을 걷다-』, 동아아시아, 2019, 251쪽; 『群山府史』, 1935, 123쪽.

왕과 권력자의 전유물이었던 책(지식정보)을 매개로 공중(민중, 시민)에게 제공하고, 국민계몽과 신분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광장(Agora, Forum)으로 근대선각자들에게 인식되었다. 『Library』는 1880년대부터 다양한 번역어로 사용되었고 1906년 일본홍도회가 “홍도문고”라 하였지만, 부산의 근대도서관은 1903년 이미 “부산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다.

근대 부산은 박기종 외 4인이 학교장 아라나미 헤이지로를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개화, 신문물, 근대문명 교육으로 개성학교를 1895~1909년간 운영하면서 마산, 밀양, 대구, 경주, 울산 등까지 지교 또는 보조교를 두었다. 한편 천황제를 공고히 하고자 修身·國民道德·忠君愛國을 표방한 일본홍도회가 1897년 부산을 거점으로 재조선 일본인 유지로 결성한 부산지회는 홍도문고·부산도서관을 1901~1911년간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도서 제공 및 순회 강연뿐만 아니라 재부산일본영사관·통감부 통계 등으로 조선의 지역정보를 파악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부산을 넘어 마산, 대구, 서울, 목포, 원산까지 미쳤다.

이에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근대도서관은 근대인의 탄생과 국민주권 및 시민사회 형성 등을 위한 근대개혁기관이라는 준거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 변용되어 부산사람들의 근대인·시민으로 성장해 가로막고 황국신민화를 위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이었으며, 재부산일본인사회의 지식정보 수집·제공 기관이었던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근대도서관은 부산지역의 경제적 수탈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향후 국내 도시 중 근대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내재해 있는 부산은 일제의 변용으로 시작된 우리의 근대 교육과 도서관에 대해 온전한 인식과 가치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아카이브 구축, 다학제간 조사연구, 주요 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 마련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加藤一夫 외 저·최석두 역, 『일본의 식민지도서관-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한울, 2009.
- 家永三郎 저·연구공간·수유+너머'일본근대사상 역, 『근대 일본 사상사』, 소명출판, 2006.
- 개성고등학교(부산상고)동창회, 『개성고등학교(부산상고)동창회100년사』, 개성고등학교(부산상고)동창회, 2013.
- 곽철완, 『도서관의 역사-권력에 따른 도서관의 발달과 쇠퇴-』, 조은글터, 2012.
-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김세익, 『圖書印刷-圖書館史』, 종로서적, 1982.
- 김영석·이용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일본홍도회 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2018.
- 김의환, 『부산근대교육사-개항~일제치하-』, 태화출판사, 1967.
- 김종문, 『釜山市立圖書館略史』, 釜山市立圖書館, 1969.
- 남충현, 「近代 韓國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에 관한 研究-日帝時代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稻葉繼雄 저·홍준기 역,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누리, 2006.
-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2002.
-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1』,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2017.
-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韓國圖書館協會, 1969.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100년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2002.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내사랑부산 자료모음집10)근대 부산 100년』,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1.
- _____, 『(내사랑부산 자료모음집11)부산근대지도 모음집』,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2.
- 부산광역시 중구, 『(역사를 품은 도시)중구 이야기 : [중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 자원]』, 부산광역시 중구, 2013.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부산광역시 중구, 『우리의 삶터 중구 부산을 담다. 上』, 부산광역시 중구청, 2018.
- ‘부산의 도서관사’ 편찬위원회, 『釜山の圖書館史』, 韓國圖書館協會 釜山地區協議會, 2003.
- 윤희윤, 『도서관 지식문화사-세상 모든 지식의 자리, 6000년의 시간을 걷다-』, 동아시아, 2019.
- 윤희윤·김경희,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연구-부산·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019.
- 이환숙, 『한국 근대도서관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박찬승 외, 『국역조선총독부30년사』, 민속원, 2018.
- 주경업, 『1928 그 때 무슨 일이...』, 부산광역시 중구청, 2013.
-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2010.
- 최순남,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부산의 지역 대표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국회도서관』 407, 2013.
- 최정태 외,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 김승·양미숙 편역, 『(신편)부산대관-사진으로 보는 부산변천사-』, 선인, 2010.
- 홍순권,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 조사보고』, 선인, 2005.
- _____,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주요인물 조사보고』, 선인, 2006.
-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 홍순권·전성현, 『일제시기 일본인의 『釜山日報』 경영』, 선인, 2013.
- 홍의균,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배경에 관한 연구-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加藤一夫·河田いこひ·東條文規, 『日本の植民地図書館ア-ジアにおける日本近代図書館史-』, 社會評論社, 2005.
- 松原孝俊, 『釜山市立圖書館略史(1901년~1938年を中心に)』, 『臺灣·朝鮮·滿洲に設立された日本植民地期 各種圖書館所藏日本古典籍の書誌的研究』, 九州大學大學院言語文化研究院, 2002.

2. 사료

- 『(在釜山日本領事館)慶尙道事情』, 1904.
『群山府史』, 1935.
『釜山開成學校 要錄』, 1934.
『釜山教育五十年史』, 1927.
『釜山案内』, 1919.
『釜山要覽』, 1912.
『釜山日報』, 1914.12.-1915.12.
『釜山港勢一斑』, 1905.
『(日清韓)三國千字文』, 1900.
『日本弘道會要覽』, 1906.
『日鮮通交史』, 1916.
『仁川府史』, 1933.
『第1-3次 統監府統計年報(1907~1908)』, 1907~1910.
『朝鮮之圖書館』, 1931~1935.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09, 1911~1942)』, 1911, 1914~1944.

3. 기타자료

- 김영주, 120년 역사 자랑 우리나라 최초 공공도서관...고문헌도서관 특화, 『다이나믹부산』 2020. 2. 4. <http://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63752> (검색일: 2020. 05. 14.)
- 백창민·이혜숙, “결혼 기념으로 도서관을...” 일제가 반긴 조선 엘리트의 제안, 2019. 4. 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32(검색일: 2019. 05. 14.)
- 송창헌, 광주 3·1 혁명.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가 주도, 2019. 2. 19. <https://news.v.daum.net/v/20190219103014697>(검색일: 2020. 05. 14.)
- 염지수, 뉴베리 도서관, 시카고의 잃어버린 역사를 재건하다, 2020. 2. 21. <https://brunch.co.kr/@yeoom/13>(검색일: 2020. 05. 14.)
- KBS 부산의 발견, 부산시립시민도서관, 2020. 3. 17. http://program.kbs.co.kr/1tv/local/bsfind/mobile/board.html?smenu=963614&bbs_loc=I0000-1521-04-93080,list,none,1(검색일: 2020. 05. 14.)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s://dl.ndl.go.jp/>

한국학중앙연구원 -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7. 06.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 Abstract |

A Study on Education and Library of Modern Busan
- Focused on Gaeseong School and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

Kim, Gyoung-Hee

This study focused on the Gaesong School and the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to establish, change and evaluate the modern Busan Education and Library. Gaesong School is the first modern school in Busan, and the Hongdo Library(Busan Library) of the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is the first of Busan and the origin of a domestic modern library. Therefore, microscopic data collection and investigation, and field research reflect on our modernity. It was intended to be the basic data for reflection and overcoming and for future development.

The modern began with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76 and transformed from pedagogical education in Seodang, Hyanggyo, Hagdang and Sungkyunkwan to rational centered and natural science-oriented European education through schools and libraries. In Busan, Gaesong School was operated by Park Ki-Jong and 4 others with Heiro Arami as the head for 1895~1909, The Hongdo Library and Busan Library were operated by the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which was formed in 1897 by Japanese people, mainly in Busan, for 1901~1911 years.

Gaesong School was educated through the successful Japanese modernization(?) of enlightenment, new product, and modern civilization through Principal Aranami Heijiro, and had branch schools or secondary schools such as Masan, Miryang, Daegu, Gyeongju, and Ulsan. Formed to

consolidate the Emperor, the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identified the regional information of Chosun through the statistical report of Consulate·統監府, as well as providing books and tour lectures on 修身·國民道德·忠君愛國, and beyond Busan, Masan, Daegu, Seoul, Mokpo Even Wonsan had its influence.

In the modern Busan education and library, the Gaesong School and the Hongdo Library(Busan Library) of the Japanese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were not a reform institution for the modern road in Busan and Joseon, but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library for Japanese Imperialism and hindering the growth of modern citizens and people and escaping from the sovereignty of Joseon. And it was a transformed modern product of the Japanese Empire that made economic aggression easier. In order to fully find our modernity, which began under the coerc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extensive empirical data collec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record and evaluation must be continuously accumulated and information literacy.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local and national future development learning from the history of success and failure.

Key Words : Modern Busan, Gaeseong School,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Aranami Heijiro